

마음 열기

찬송가 449장을 함께 부르시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작성한 각자의 다짐을 나누어 봅시다.

말씀 나누기 열왕기하 5장 8-14절, “순종하면 살아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8절).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권세와 물질을 모두 가졌지만,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 나아만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나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3절).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서 왕에게 나아가 허락을 구했고, 왕은 그에게 재물과 나병을 꼭 고쳐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주어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4-6절). 나아만을 만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병이 낫지 않으면 그것을 트집 잡아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7절). 나병은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병이 나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때 선지자 엘리사는 왕에게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라고 말합니다(8절). 이 말은 엘리사가 자신을 높이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세상을 두려워하며 절망하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9-13절).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9절). 그러나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사환을 시켜 “요단강에 일곱 번 씻으라”는 말만 전합니다(10절). 그런데 이것은 나아만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직접 나와 서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자기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11절).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나라에 있는 강들이 요단 강보다 나았습니다(12절). 무엇보다도 나아만은 자신이 섬기던 왕에게도 사랑받았고, 어딜 가나 대접받고 높임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분노하였고,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엘리사를 찾아갔던 이유였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

아갔습니다. 심지어 나아만에게 요구하신 순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고침을 받으러 와놓고, 자존심이 상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은 절대적으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존심과 하기 싫은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나의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깨닫고 **다시 순종을 시작해야 합니다.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화를 내며 돌아선 나아만 장군을 막아 선 것은 다름아닌 그의 종들이었습니다(13절). 하나님께서 나아만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종들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한 가지부터 순종하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 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앞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살아납니다(14절).

나아만은 결국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요단 강에 나아가 일곱 번 몸을 담갔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습니다(14절).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아람 나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에 씻기시는 방법으로 고쳐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있는 구속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씻어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아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탐심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엘리사의 종 계하시는 오히려 나아만의 나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만이 살 길임을 깨닫고 작은 것부터 순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순종 뿐입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분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도록 쉬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씻음 받고, 자유함을 얻으며,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하는 순종마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 순종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작은 순종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말씀의 은혜를 나눙시다.

1.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순종은 무엇인가요?
2. 그 순종을 놓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나아만에게 회복의 소망이 있었듯, 나에게도 어떤 소망이 있나요?

말씀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1. 나의 욕심과 게으름, 자존심과 생각으로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2.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3.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신앙백과 _ “고난주간의 의미와 유래”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고난, 그리고 무덤에 머무신 사건을 기억하며 지내는 기독교의 가장 거룩한 주간입니다. 종려주일(주일)부터 성토요일(토요일)까지의 8일간을 의미합니다. ‘고난주간’이라는 명칭은 라틴어 ‘Hebdomas Sancta(거룩한 주간)’에서 유래했으며, 예수님의 고난(Passion)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수난주간’이라고도 불립니다.

고난주간의 기원은 초기 기독교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부활절 직전 며칠 동안 금식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했습니다. 2세기경에는 이 금식 기간이 1~2일 정도였으나, 점차 주간 단위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된 후 4세기경,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일주일을 날짜별로 기념하는 예배 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순례자 에테리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은 복음서의 기록을 따라 해당 장소를 방문하며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고난주간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재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통해 놀라우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하여 나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복된 부활절에 허락하실 부활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 나 자신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신의 삶 속에서 더욱 커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 『기독교 대백과사전』, 『에테리아의 순례기』, Justo L. Gonzalez, 『기독교회사』

FAMILY 나눔

2026년 3월 22일

순종하면 살아난다

열왕기하 5장 8-14절

